

익산시 귀농 · 귀촌에 탄력

군산형 상권르네상스마켓 대성황

2020년 첫 플라마켓... 북문광장 등 관광객 1,000여명 참가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준공 눈앞... 입주자 모집나서 영농교육 · 농업창업 · 주택 구입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익산시의 귀농 · 귀촌 정책이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준공을 앞두고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귀농 · 귀촌을 막연하게 꾸민 것만 이들에게 농업 농촌 현장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전 주거 시설을 제공해 구체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며 농촌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익산시는 예비 귀농 · 귀촌인들에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재형 농가 실습 농장 주거시설'을 10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합월을 다스리다 신축한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주거시설은 지난 2017년 전북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총 20여여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과 건축 부지 토목공사를 거쳐 지난해 9월에 착공, 8개월에 걸친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된다.

이번에 신축된 주거시설은 총 10세대로 1룸형(27㎡) 6세대와 2룸형(54㎡) 4세대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대에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내에는 입주자 간 화합과 회의 장소로 이용 가능한 공동 이용실도 마련됐다.

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을 귀농 · 귀촌 희망자들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특히 은퇴한 공직자들의 지

역 내 유입을 위해 오는 6월 말 공무원연공공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입주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중이다. 입주자격은 익산시 귀농 · 귀촌 희망자로 세대당 2인 이상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 · 귀촌인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 귀농인(40세 미만)은 우대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주하며 보증금 50만원과 월 임대료

27㎡(8평형)는 11만6,000원, 54㎡(16평형)는 23만4,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전기 · 수도 등 공공요금은 개별부담이다.

또한 입주 세대당 100㎡씩 제공되는 농가 실습 농장에서 직접 작물을 심을 수 있고 재배하며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귀농 · 귀촌교육과 영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향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시 필수인 교육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 선정 절차에 유리한 점이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 귀촌계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우편접수 또한 가능하다. (문의 ☎359-4948)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 귀농 · 귀촌 정책이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준공을 앞두고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구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해 실시한 상권르네상스마켓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민과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단장 신지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월 30일 구도심상권르네상스구역인 군산공설시장 북문광장과 옥상정원에서 시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참가한 '상권르네상스마켓'을 성황리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라마켓은 기존 청년물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성된 판매자 모임인 '마켓, 머물다' (에비)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청년상인, 일반시민 30여개팀이 함께하여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 및 상품판매와 생활체험프로그램(케이크꾸미기, 수제청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으로 시민과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군산시 플라마켓 발전방향 토론회와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했다. 시민참여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증정해 상생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성평등, 다문화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해 색다른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앞으로 르네상스마켓은 내년 3월까지 총 6회를 계획하고 있다. 중앙동도 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숲과 중앙시장 청년몰 등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색다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민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판매자와 방문시민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가 이뤄졌으며, 손소독제 비치와 생활 속 마스크 착용 홍보도 진행했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강임준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을 응원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군산형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격적인 지원을 다하겠다" 밝혔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강임준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을 응원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군산형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격적인 지원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군산시 구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80억원으로 구도심 공설시장, 신영시장, 재보선창 주변 상가 6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권활성화사업은 거리별특화지원, 수산물특화마켓팅, 창업 및 디자인개선, 축제 및 공동마켓팅, 상품 및 점포육성, 혁신상인 육성 등이다. 군산시 구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 (063-442-794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쌍방울 · 남영비비안, 마스크사업 시동

익산 국가산단 내 300여억원 투자, 150명 고용 창출

익산시는 2일 시청에서 쌍방울 그룹 구자권 부회장과 (주)쌍방울 김세호 대표, (주)남영비비안 이규화 대표, 유희숙 부시장, 김남영 BCO융합첨유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융·복합 첨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주)쌍방울과 관계사인 (주)남영비비안은 익산 국가산단 내 쌍방울 공장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300여억원을 투자해 3D 및 2D 마스크 설비 25대, 덴탈마스크 설비 5대 등을 도입하고 150여명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쌍방울은 지난 70~80년대 익산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6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해 연말까지 발주 물량 납품에 주력할 계획이다.

변화된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연관 수요가 확대되는 방호·위생용품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고자 마스크 사업에 진출, 연간 4억대장이

상을 공급하는게 1차 목표이다.

이번 부자가 안정 되면 향후 설비를 신규 증설해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글로벌 융복합 첨유기술 선도기업 육성에 앞장 서 온 BCO융합첨유연구원은 섬유·패션·마스크 사업에 대한 공동 기술 개발과 보유 장비 등 활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희숙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필수 위생 용품이 된 마스크 사업 진출로 고항과도 같은 익산에서 제2의 부흥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공동주택 통합관리소 개소 군산시 27개단지 시범운영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군산시는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통합관리소'를 개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없는 3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나원동·3동·소룡동에 위치한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시 조례 제4조의 2 등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본 안전점검실시,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지원사업 연계 검토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교통상습 정체구간

군산시 시설개선 호응

군산시가 교통상습 정체구간 시설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의 군산경찰서는 지난 5월 교통상습 정체구간인 월명로에 위치한 신승교차로(롯데마트앞)와 수송교차로 좌회전 차로 증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공사는 신승교차로와 수송교차로 중앙분리대 안에 있는 수목을 이설하고 각 70m씩 총 140m의 좌회전차로를 증설했다.

월명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그동안 좌회전차로 길이가 짧아 1차로 까지 좌회전 차량들이 밀려 있어, 직진차량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공사로 그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사는 군산경찰서의 협조와 군산시 산림녹지과의 식수대 철거, 건설과의 토목공사, 교통행정과의 신호운영 및 차선도색 등 여러 관계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 행정이 더욱 돋보인 사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호평

지급률 93%... '찾아가는 신청 접수 운영' 돋보여

익산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3%를 넘어선 등 빠른 신속 집행이 호평을 받고 있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직접 방문해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고령이나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며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기프트카드 접수 기간인 8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가

구 구청원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으로 실시된다. 다만 지급 가능한 가구원이 확인됐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된다. 지난주까지 접수 받은 결과 97건이 신청됐으며 대상자와 날짜 협의 후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방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익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체 12만 7,002가구로 예산 787억4,4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지급률은 지난달 29일 기준 93.6%이다.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

자 등 현금지급 대상자 2만4천여 세대에 현금 지급이 완료됐고 일반세대는 전체의 57.2%인 7만3,000여 세대가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기프트카드는 17%인 2만2,000여 세대가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익산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1일 108명씩 전담인력을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구수 재산정이나 이혼, 자녀 부양관계 등으로 제기된 약 1,200여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